

제37회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 일 시 : 1996년 10월 16일~18일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실내 체육관)
- ◆ 출연종목 : 서도소리 (선소리, 산타령)

평 안 남 도 중 앙 도 민 회  
서 도 소 리 보 존 회

## ♣ 서도 소리에 대하여 ♣

서도소리는 남도 및 경기민요와는 역사적으로 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향민의 노래인지라 이곳 남쪽에서는 나이드신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관심있는 분들 말고는 알려져 있지 못한 연유로 인하여 인기도가 낮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도소리는 남도의 판소리와 같이 우리의 국악 창문화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소리인 것이다. 남도 판소리의 찢어지는 듯한 격정의 한맺힌 소리에 비해 반음이 많고 섬세한 가냘픈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가슴속에서 우러나고 뱃속으로 부터 토해내는 애절하고 끈끈한 서도소리는 그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서지방인 평안도와 황해도지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소산된 서도지방의 고유 민속노래이다. “긴아리”와 “연평도 난봉가” 등과 같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부르던 노래에서부터 “관산용마”나 “공명가”처럼 전문적 소리꾼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워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곡목 수 또한 많다. 서도소리는 이처럼 서도지방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애환과 삶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 내려온 것이다. 조선말기와 일제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본 고장은 물론 서울 장안에서도 남도소리 못지않게 서도소리 명인, 명창들의 활동이 두드러 졌었다. 이정화, 문연수와 같은 서도소리 명창들이 장안무대를 휘어 잡았으며 이영산홍, 이진봉, 백운선, 김옥엽 등과 같은 평양출신 소리 명창들이 서울에 올라와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경기명창들도 이 시대에는 서도소리를 부르지 못하면 행세를 못할 정도로 서도소리의 전성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경기민요에는 각종 서도소리가 다수 동화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변하고 6.25사변으로 인하여 서도소리의 맥이 끊어져 한동안 이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다. 또한 서도소리의 본 고장인 북한에서는 혁명가, 투쟁가 등의 획일적 음악정책에 따라 우리의 전통소리는 변질되고 전승되지 않고 있어 그 맥이 이미 끊어졌음은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의 고유음악을 길이 보존, 전승하고자 서도소리에 관하여는 과거의 명인, 명창들에 의해 전수받은바 있었던 장학선 선생에게 맥을 잇게하여 예능보유자로 지정 보급하여 오다가 1970년도에 타계하자 그 이듬해인 1971년 2월 8일 서도소리의 대표적 곡목인 “수심가” “관산용마”등을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 이의 보유자로 김정연, 오복녀 양인을 예능보유자로 지정하기에 이르러 지원 육성하여 맥을 이어 나아가고 있던 바, 1985년 김정연 명창마저 작고하여 현재로는 오복녀 선생만이 남아 그의 수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전수돼 원형이 계속 전승, 보급되고 있음은 우리나라 국악계의 일분야를 점하고 있는 서도소리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서도입장

## 해설

서도 선소리 산타령이라고 일컫는다.

첫번째로 부르게 되는 「놀량」은 경기의 놀량에서 파생된 소리로서 사설도 알기쉽게 표현돼 있고 경쾌한 장단의 명랑한 노래이며, 가창방식은 선창자가 첫 머리만 독창으로 부르면 그 뒤 부터는 여러 창자들이 제창으로 부르는 통절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서 앞산 및 뒷산타령은 유명산을 노래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주고 받는 해학적인 표현이 인상적이다. 끝으로 부르게 되는 경발림은 일명 경사거리라고도 한다.

사설내용에서 경기산타령의 관동팔경과 서도팔경이 대격을 이루고 있다.

독창부분의 원마루와 제창부분의 후렴이 각각 4절씩으로 구성돼 있다.

♠ **놀 량** : 에라디여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녹양에 뺨은 길로 북향산 쪽 들어를 간다/ 에이에 이에 어허야 요홀네로구나/춘수 나니 낙락 기러기 나니 훨훨 훨훨 낙락 장송이/와자지 끈두 다 붙어졌다. 마른 가지나마 지화자자 좋을시구나 지화자자 좋을사구나/열씨구나 좋다 말들어를 보아라/인간을 하직하고 청산을 쪽 들어를 간다/에이 에이헤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황혼 아니 거리검초 잡고 서낭당 섬벽궁새/한마리는 남게 앉고 또 한마리 땅에 앉아/네가 어데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데메로 가자느냐 아산 넘어가도 거리섬벽궁새야/저 산 넘어가도 거리 섬벽궁새야 에/어린낭자 고운 태도/눈에 암임하고 귀에 쟁쟁비나네 비나이다 비나니로구나 소원성취로 비나니로구나 에/삼월이라 육구함도 대 삼월이라. 열씨구나 절씨구나 담불담불이 생김도 사랑/기암에 고석에 기어나 올라 휘휘칭칭니 감긴도 사랑/사랑초 다방초 흥두께 넌출넌출이 박넌출이/요내 가삼애 맏힘도 사랑 에헤에/나의 열 네로구나 아하 아하.

♠ **앞산타령** : ※ 나 네 노 니히나/네헤 에헤에 에헤에나 노/나에로 산하지로구나 아하아.

(1) 과천관악산 염불암 연주대헨데/도봉불성 삼막으로 에헤들렀다 아하아

※ 에헤에 에헤로 지이히이지로구나 말을 네야하 나에 헤로 산하지로구나 아하아.

(2) 백마는 가자고 네 굽을 당기당 치는데/임은 옥수를 부여 감고 낙루 탄탄석만 한다 아하아.

※ 우지를 말어라 우지를 말어라 네가 진정코 우지를 말어라/너무나 울어도 정만 없어진다.

♠ **뒷산타령** : ※ 나지나 산이로구나 에 에 두견아 에/어허야 지루허구 산이로구나 에

(1) 여 초목이 동남풍에 거리 섬벽궁 우는 소래/장부요내 영혼의 간장을 다 녹여낸다 에

※ 나무일만 똑똑똑/떨어져도 한병인가 의심하고 새만 좌르르르 날아 들어도 자롱의 삼지창만 여겨 의심한다 에

(2) 갈가 보다 말가 보다 님을 따라 갈가보다/자롱이 결강허는 청 총마 비껴타고/이내 일신이라도 한양을 따라 갈거나 에

※ 에라 놓아라 못 놓겠구나 에라 놓아라 못 놓겠구나/엄지손가락은 다 물어빠지고 새끼손가락은 삼동에 나는데/에 오마니 알며는 매맏겠네/짜장 깊은정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놓겠다 에

♠ **경발림** : (1) 중원지병방이요 입세는 요란한데 삼산반락에 청원외요/이수중분의 백로주르다 에

※ 어데로가자고 날만 줄라/어데로 가자고 지그령직신/날만 조리조리 줄조리 따라 만산에 청룡 가잔다 에

(2) 강원도 금강산에 유점사 범당뒤에/느릅나무 가지 가지마다/서천서역국서 나오신 불상/오십삼불이 분명하단다 에

※ 관동팔경 구경을 가자/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울진의 망양정 삼척의 죽서루/고성의 삼일포 통천의 충석정/평해의 월송정 간성의 청간정 이란다/놀이 좋기는 남원의 광한루르다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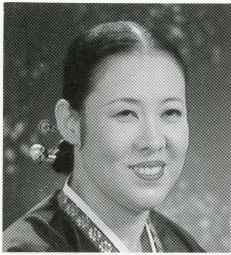
(3) 바람이 불라는지 나무중등 거드러 반층추고/억수장마가 지라는지 만수백수 무상의 대지구름이 펴 퍼졌단다 에

※ 서도팔경 구경을 가자/삼동의 황학루 성천의 강선루 개천의 무진대 영변의 약산대 강계의 인풍루/의주의 통군정 안주의 백상루 평양의 영광정이란다 놀기 좋기는 부벽루 대동강이라 에.

● ● ● 서도소리 출연진 ● ● ●



오 복 녀(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보유자)



신 정 애



유 지 숙



김 옥 숙



유 혜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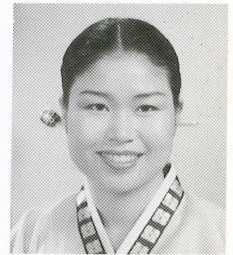
박 연 숙



김 신 영



홍 기 숙



유 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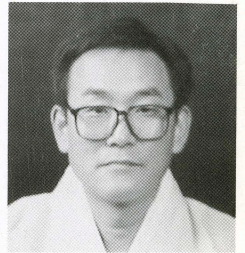
이 지 녀



김 경 란



박 준 길



송 용 재



안 창 원



진 대 언



최 병 문